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흑인 여성의 동등한 임금의 날(BLACK WOMEN'S EQUAL PAY DAY), CUOMO 주지사가 만든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 및 에센스 매거진(ESSENCE MAGAZINE)은 여성 리더들과 함께 흑인 여성을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을 공동 개최

오늘 포럼에서는 일터에서 흑인 여성이 직면하는 특정 장애물을 알아보고 모두에게 경제 기회를 줄 해결책을 분석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흑인 여성은 여전히 64센트를 벌고 있어

흑인 여성의 동등한 임금의 날(Black Women's Equal Pay Day)인 오늘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 및 에센스 매거진(Essence Magazine)은 전미 도시 연맹(National Urban League)에서 여성 리더들과 함께 흑인 직업 여성들을 괴롭히는 임금 격차에 대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고 모든 여성이 일터에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해결책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포럼은 경제적 보장과 기회에서 오는 문제를 다룰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주 전역에서 열릴 지역 포럼 중 첫 번째 포럼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최저 임금 15달러를 시행하고 과거 봉급 내역 문기를 금지하는 등 뉴욕은 여성의 권리와 경제적 평등함을 실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입증할 것이며 뉴욕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줄이는 해결책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에 참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진보적 리더십 하에 우리는 여성에게 주는 경제적 기회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이용하여 임금 격차를 줄이며 뉴욕의 여성들을 위해 동등한 일에 맞는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인종 및 성 불평등 문제를 논의할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 겸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Cuomo 주지사님은 정부와 Trump 행정부의 합동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을 위한 진보가 계속 되도록 지지하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로 뉴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성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직면하는 체계적 장애물을 없앨 해결법을 제시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행사는 에센스 커뮤니케이션스(Essence Communications)의 Michelle Ebanks 사장이 사회를 보았고 다음과 같이 저명한 흑인 여성 리더들 다양한 패널이 참여했습니다.

- 개신교 복지 기관 연맹(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 Jennifer Jones Austin 전무 이사
- Lola Brabham, 공무원 뉴욕주 인사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ivil Service) 커미셔너 대행
-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뉴욕주 콘퍼런스(NYS Conference) Hazel Dukes 박사
- 교사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UFT)의 아카데미 하이스쿨스(Academic High Schools)의 부대표인 뉴욕시 노동총연맹(NYC Central Labor Council)의 Janella Hinds 비서관 겸 회계 담당관
- 카버 연방 저축은행(Carver Federal Savings Bank)의 Blondel Pinnock 상무 겸 대출 최고 담당자
- 블랙 위민스 블루프린트(Black Women's Blueprint)의 Farah Tanis 전무

올해 초 뉴욕주가 뉴욕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는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회적 기준 때문에 백인, 비 히스패닉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64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유리 천장만을 없애려는 전통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여성들을 “3D 업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저 임금 15달러 시행, 공공 및 민간 회사의 고용주가 이전 봉급 내역을 묻는 것 금지 등 이미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려는 몇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포럼과 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인 이와 비슷한 포럼들은 이러한 노력에 기반하여 지역적으로 집중하도록 돕고 주 전역의 흑인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시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에센스 커뮤니케이션스(Essence Communications)의 Michelle Ebanks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사명으로 에센스(ESSENCE)는 뉴욕주와 그 너머에서 유색 인종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접근이 쉬운 경제적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와 함께 흑인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주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해결법을 제안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뉴욕주 콘퍼런스(NYS Conference) 회장 Hazel Duk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전문 배경과 다른 관점을 가졌으나 평등한 기회에 대해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주신 주지사 집무실에 감사드립니다. 포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지사님과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 기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여성 투표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뉴욕주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